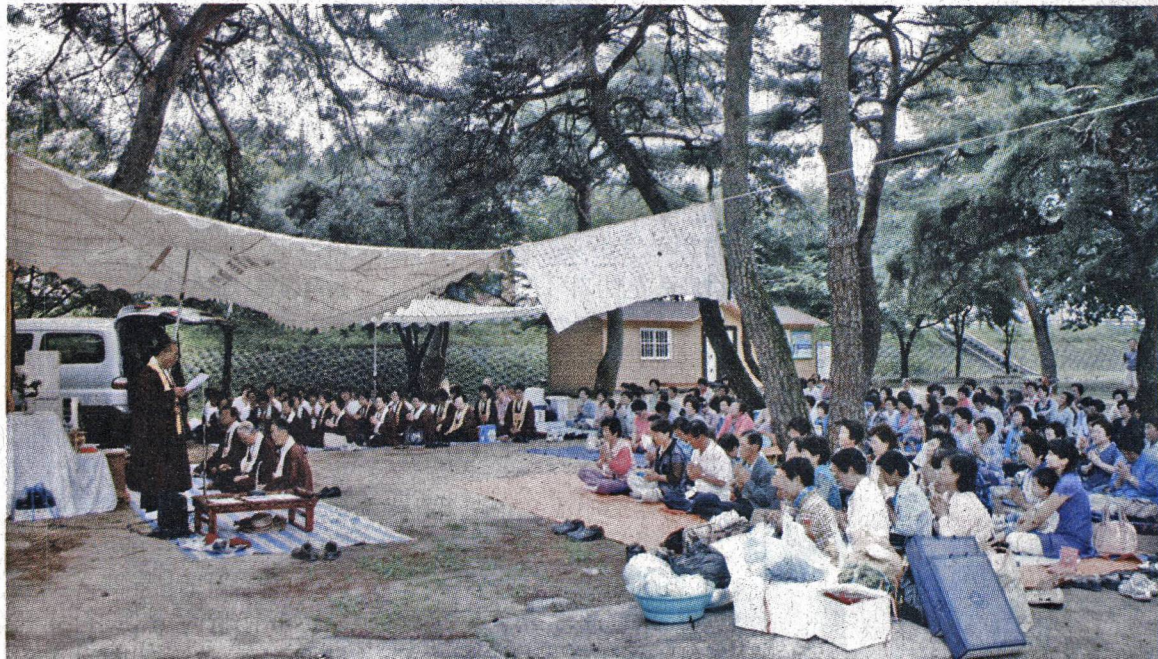




하반기 49일 불공 원만 회향

각 교구별 방생법회도 열려



▲ 7월 16일 점촌 영신유원지에서 열린 대구경북교구 방생법회.

불교충지중은 7월 15일 서울 총 38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회향불사를 봉행했다. 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한 것으로 총기 4년(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당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 해 상·하반기 각 49일간 2회 실시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는 호국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으로, “정법을 호포하고 선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백성들이 안락하고, 국권이 튼튼하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설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밀교 고승 명랑법사와 혜통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의 많은 승려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신봉해 왔다.

한편 이번 49일 불공회향 불사 방생 대법회가 7월 16일 각 교구별로 개최됐다.

부산·경남 교구와 충청·전라 교구가 전북 진안 용담댐에서, 대구경북 교구가 경북 점촌 영신유원지, 서울·경인 교구 충지사가 강

원도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각각 법회를 진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방생대법회 법어에서 “방생 의식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간담심을 보리심으로 바꾸는 정성스런 일”이라며 “우리 진언행자들은 이번 방생법회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양하고 아울러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불사에 무투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방생은 목은 죄업을 참회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자비심을 배우는 자리”라며 “이번 방생법회 동참 공덕으로 나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 성불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생법회는 각 교구별로 대비로자나 불전 호법, 유가삼밀, 등으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 후 인근 사찰 순례와 장기자랑 행사도 열렸다.

(관련기사 10면)

충지중 제9대 중앙종의회 구성

“종단중흥 위해 매진하길”



불교충지중은 7월 31일 제 9대 중앙종의회를 구성하고 부산 정각사 주교 대원 정사를 종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의회가 되길 바라며, 종단중흥을 위해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란 무엇인가?...유머와 재치로 답하다

‘충지사 교도 불교퀴즈대회’ 응모자 시상

충지사(주교 선도원)는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충지사 교도 불교퀴즈대회’의 응모를 마감하고 7월31일 최종 심사를 거쳐 응모자 가운데 우수자를 선정하였다.(관련기사 11면)

지난 5월 2일 「가족과 함께 즐겁게 퀴즈를 풀어 봅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된 이번 ‘퀴즈대회’는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참교도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점심공양을 마치고 오손도손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같이 즐겁게 ‘불교퀴즈문제’를 풀어본 시간은 또다른 즐거움을 주었다는 평가다.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간단하면서도 센스와 유머, 재치가

넘치는 글로 표현한 응모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품을 수상키로 하였다. 『불교는 00이다. 왜냐하면, 00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제로 실시되었던 퀴즈대회에서 가장 표현을 잘한 응모자 중에 14명이 우수작품으로 채택되었고 응모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수여한다. 응모안 중에는 불교는 “육식이 다. 닭을수북 빚이 나니까” “나침반이다. 인형의 가야할 길을 알려주고 지도하니까” 등의 다수 포함되었다.

응모 접수는 지난 6월말 마감하였고 응모방법은 충지사에 마련된 응모지를 ‘접수함’에 직접 넣거나 충지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었다.

종조법설

나무가 매일 자라듯이

뜰에 심은 나무가 매일 자라나지만 항상 보는 사람 눈에 안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 수행 과정에도 매일 성품 좋아지나 항상 보는 사람들은 좋아진 줄 모르지만 오륙칠년 지나 보면 좋은 성품 보일지라 이 이치를 미리 알고 가족간에 서로 도와 꾸준하게 믿고 믿고 심금토록 할지니라.

-종조법설집 수행편

어린이 청소년 여름 수련법회 개최

“생태환경보호-탐구정신 배양”



▲ 충지중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남 보령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여름 청소년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불교충지중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남 보령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여름 청소년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이번 수련법회에선 종단산하 전국 각 사원의 어린이와 청소년(초·중·

고), 중립 동계중학교 불교반 학생, 교도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수행과 공동체 교육, 자연탐방 활동 등의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선 입제식과 중

려본은 어느 누구보다도 방학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부장 정원 정사는 회향식에서 “수련대회는 끝났지만 여기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배풀고, 어려운 일도 참아 내는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련회 참가자인 윤형준(8) 어린이는 “형과 누나들이 잘 대해줘서 힘들지 않았고 갯벌체험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방효민 어린이(11)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단체생활을 하면서 인내심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에선 부산 정각사 바라밀 아동센터 김도영 어린이와 동해중학교 3학년 강동우 학생이 1등 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정각사 바라밀 아동센터 방영민, 실보사 곽태일, 성화사, 박해규, 동해중 윤정호, 강민석 학생이 각각 상을 받았다.

(관련화보 12면)

경로법회 오는 25일 올린다

불교충지중은 오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경북 울진 백암 한화리조트에서 제8회 경로법회를 개최한다.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로법회엔 전국 각 교구의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로법회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입제식과 노래 경연대회, 각 사원 장기자랑, 저녁경승, 연예인 공연 등이 진행되며, 이튿날엔 온천욕과 회향식, 관불이 이어진다. 이번 경로법회에서는 각 사원별로 각 사원별로 어르신을 봉양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격년제로 열리는 경로법회는 전국 각 사원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다양한 위로 공연을 열어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전국 사원과 교도간 결속을 다지는 종단 주요 행사이다.

참가·봉사문의 02)552-1080

제8회 경로법회

제8회 충지중 경로법회에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경로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한 이번 법회에는 장기자랑, 야외법회,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참가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 일 시 : 충기38년 8월 25일 ~ 26일
- ◆ 장 소 : 경북 울진 백암온천 한화리조트
-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 ◆ 자원봉사 : 각 사원별 어르신을 봉양할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사 설

수련법회 전문가가 필요하다

어린이 수련법회가 올해로 19회째를 맞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보령청소년수련관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총지종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화합 단결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 수련법회를 열어 오고 있다.

수련법회의 목적은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쳐 주고 종단을 소개함으로써 미래의 총지종 교도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실 때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같은 이야기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어린이 수련법회를 한다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어린이 수련법회를 진행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지종에서 어린이 수련법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종단 중무임을 하는 교무들이다. 매일 사무실에서 중무일에 매진하고 있는 교무들은 중무행정에 관해선 전문가일지 모르나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중무의 바쁜 와중에도 이 정도로 어린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수익을 내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 기계설비도 갖추어야 하고, 신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바라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 종단의 교세가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린이 수련회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성학교와 청년회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를 하지 않고 교세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위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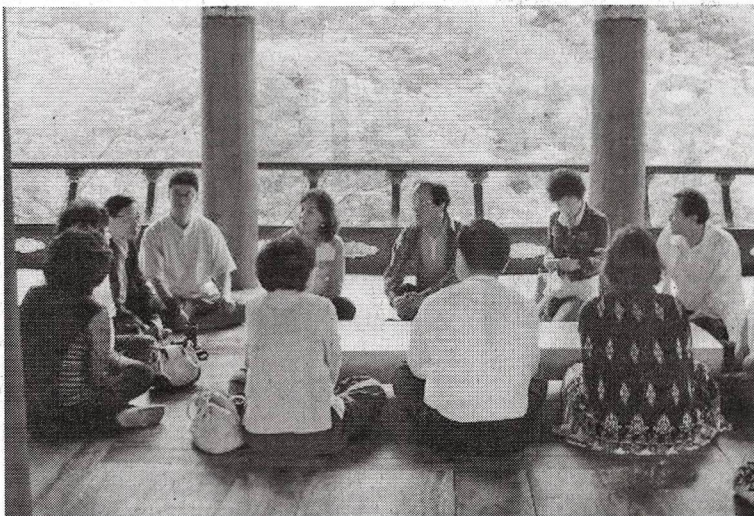
종단에서 어린이 수련법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다면 어린이 수련법회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어린이 수련법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어린이 수련법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어린이수련법회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어야 한다.

그 즐거움 속에 어떻게 불교를 접목시킬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인재양성과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부산 정각 불교대학 내실 운영

매주 목, 불교 교양 강좌 개설



▲ 불교역사 탐방중 표창사를 참배하고 차담을 나누는 모습

정각 불교대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각불교대학은 2008년 봄에 정각사 교도들을 주된 수강생으로 하면서 시작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불공 위주의 수행만 한 노보살님들이 불교 교리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

여하였으며, 당시 주교로 있던 법공정사님의 열성과 신정회 및 단월회의 후원, 그리고 강의 맡은 김종인 박사의 끈기와 노력으로 1년의 교육 기간을 마쳤다.

2009년부터는 단월회의 젊은 각자님들과 동해중학교의 어머니독서회 및 불교 어머니회 회원들이 주된 수강생이 되어 총

지불교대학의 외연을 넓혔다. 수강생들의 연령이 이처럼 대폭 젊어졌을 뿐 아니라, 기존 정각사 교도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함께 공부하는 것은 정각사의 미래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일이라 하겠다.

정각사 불교대학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수업을 하고 있으며, 봄에는 김종인 박사가 쓴 <반야심경>을 공부하였으며, 지금은 화령 정사가 쓴 <불교 교양으로 읽다>를 공부하고 있다. 종단 인사가 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더욱 뜻이 깊다 하겠다. 또 수업 후에는 다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다함께 차담을 나누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초파일에는 모두들 정각사에 연등을 달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에 서원당에 들러 참배를 하는 등 교도의 일원이 되어 가고 있다.

여름수련법회를 다녀와서...



방영민 (구서초등학교 5학년)

우리는 7월22일 관광 버스를 타고 충남 보령으로 떠났다. 가면서 휴게소도 들리고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도착하였다. 수련관을 내 강당에서 입제식을 하고 방배정을 받았다. 우리 바람친구들과 언니들은 모두 10호실에 배정되었다. 방배정이 끝난 후 허브랜드를 가게 되었다. 칠감산에서 금봉아들도 많이 있었고 기념품가게에서 기념품을 샀다. 우리집에도 허브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자주 죽어서 다음번에 한번 더 가게 되면 죽지 않게 허브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허브랜드 구경을 마친 뒤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수련장 근처에 있는 석탄박물관으로 갔다. 석탄을 캐고 있는 모양의 마네킨들이 신기했고 엘리베이터로 400m를 내려갔을 때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진짜 400m를 내려갔다는 것이 거짓말 같았다. 또 연탄과 조개탕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다.

석탄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저녁밥을 먹고 체육관에서 아트공연활동을 하였다. 길다란 풍선 하나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서 신기했는데 교관님들은 몇 번만 꼬여도니 강아지와 같이 완

성되었다. 나도 만들어 보았지만 터져버려서 속상했다. 한번 더 도전 해보고 싶었다. 첫째 날은 아트공연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끝나 숙소로 돌아와서 언니들과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놀았다.

둘째 날에는 아침식사를 하고 갯벌로 향했다. 장갑도 끼고 장화도 신고, 비닐봉지와 소금도 들고 우리는 갯벌로 들어갔다. 교관님을 따라서 멀리 가서 '맛조개' 잡는 법을 배우고 우리도 각자 맛조개를 잡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서 1개를 잡고 교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4개를 더 잡았다. 그렇게 나는 5개밖에 잡지 못하였지만 연주는 열 개 넘게 잡았다고 한다. 너무 부러웠다. 갯벌 체험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바다에 갔다. 가서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며 물에 빠질 뻔도 하고 수영도 물어버릴 뻔 하였지만 아주 재미있게 놀았다. 물놀이를 마치고 수련관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은 뒤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였다.

장기자랑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팀별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았다. 장기자랑은 다른 사람들이 한 장기자랑들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바람친구들과 친구들의 장기가 제일 멋졌다. 그리고 난 내 동생 효민이가 춤을 너무 잘 춰서 놀랐다. 마지막으로 단체로 춤추는 시간을 갖고 열심히 한 팀들은 선물도 받고 숙소로 돌아왔다. 이번캠프는 저번캠프보다 더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았다.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행의 길에서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고 제 일먼저 창문 밖부터 쳐다봤다. 역시나 장대같은 비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창을 두드리고 나의 입에서는 "아! 어저께"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오늘은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는 방생법회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비가 쏟아져 법회가 무사히 회향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에 마음은 심란했다. 그래도 날이 밝으면 비가 그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원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새벽불공을 마치고 서원당을 나올 때 까지도 비는 조금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종단은 상·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을 한다. 종조법설집에 "49일 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국가발전과 호국에 있으며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기원하는 불공이 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지 않아 버스 안 좌석은 반도 차지 않았다. 먼저 나와 있는 보살들도 빈자리와 창박을 번갈아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출발시간이 거의 되어서야 비에 흠뻑 젖은 보살님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나 둘씩 버스에 올라섰다. 늦어서 미안하다면서 환하게 웃는 그 얼굴 그렇게 반가울 수가...

버스는 정해진 출발시간을 조금 넘기고서 출발했다.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평소에는 20분이면 갈 수 있을 거리를 1시간이상 걸려 도시를 겨우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렸다. 나는 가만히 염주를 돌리면서 운전기사 머리위에 달린 거울을 통해 내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보살님들의 얼굴을 보았다.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입으로 진언을 염송하는 그 표정들은 참으로 편안해 보였다. 며칠 전 방생법회를 앞두고 날씨걱정을 하던 나에게 해마다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는 이때가 장마철이라 항상 비가

우중(雨中) 방생법회 가던 날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방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라고 설해져 있다. 이러한 큰 불공을 회향하는 오늘 법회는 어느 법회보다 우리 종단으로서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 그래서 올해는 멀리 전북 진안까지 가서 부산경남교구 뿐만 아니라 충청전라교구와 같이 합동으로 봉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장대 같은 비가 쏟아내려 혹시 오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행사장소로 출발할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온천장 지하철역으로 갔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도 허리 아파죽을 아파 비에 흠뻑 젖어 버렸다. 버스에 올라서니 먼저 와있던 몇몇 보살님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버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는 지금 내리고 있는 비 때문에 도시 곳곳의 가옥과 도로가 침수되었고 교통도 거의 마비가 되었으며 각 학교들도 비 때문에 임시휴교한다며 아나운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뉴스를 전하고 있다. 출발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비 때문인지 교통 때문인지 많은 보살님들이 아직 도착하

왔지만 한 번도 비 때문에 회향법회가 취소된 적이 없다며 우리 정각사보살들의 신심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잠시 동안은 멈출 수 있다며 걱정 말라고 하시던 노보살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사실 내가 오늘 법회에 동참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심보다는 정각사에 근무하는 승직자로서의 의무감이 앞서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지금 내 뒤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염송을 하고 있는 우리 정각사 보살들은 의무감 같은 타의에 의한 동참이 아니라 순전히 자의에 의한 돈독한 신심에서 오늘 같은 악천후 속에서도 조금의 불평도 없이 동참한 분들이다. 내심 참 부끄러웠다. 그리고 부러웠다 나는 언제쯤 저런 경지에 도달 할 수 있을까... 처음 정각사에 발령받아 서원당에 인사하러 온 나에게 큰 스승은 큰 보살이 만든다면 서 큰 보살이 많은 정각사에 온 것을 부처님의 크나큰 기피라고 여기라며 내손을 잡고 하던 인사말이 새삼 살에 와 닿는다. 지금 버스 안에서 같이 불공하고 있는 저 큰 대(大)보살님들 덕분에 오늘도 나는 큰 법 하나 챙겨 간다.

자민행(부산 정각사)

알림

- ▶ 8월 25~26일까지 경북 울진 백암 한화콘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8회 경로법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문의는 통리원 02)552-1080으로 하시면 됩니다.
- ▶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9월 월초불공을 올립니다.
- ▶ 총지사 서예교실이 매월 2째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총지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천사	경원	7/31	10,000
개천사	무명씨	7/16	5,000
개천사	이희권	7/23	10,000
관성사	정현채	7/24	20,000
관성사	박현숙	7/27	10,000
관성사	황성녀	7/28	10,000
관성사	조정숙	7/17	10,000
기로원	대관	7/20	10,000
기로원	대자행	7/20	10,000
기로원	밀공정	7/20	10,000
기로원	법수원	7/20	10,000
기로원	법장화	7/20	10,000
기로원	법지원	7/20	10,000
기로원	불명심	7/20	10,000
기로원	사홍화	7/20	10,000
기로원	상지화	7/20	10,000
기로원	수증원	7/20	10,000
기로원	총지화	7/20	10,000
기로원	대지화	7/17	10,000
단음사	법연지	7/24	5,000

단향사	이은별	7/30	10,000
단향사	행원심	7/30	10,000
만보사	이춘형	7/31	10,000
만보사	지성	7/31	10,000
만보사	승호제	7/31	10,000
말인사	이재갑	7/8	20,000
말인사	이혜성	7/20	20,000
말인사	원당	7/20	10,000
말인사	표심해	7/20	10,000
말인사	이연수	7/27	10,000
말인사	이재호	7/29	10,000
말인사	정정희	7/29	5,000
말행사	무명씨	7/1	20,000
법천사	시정	7/20	10,000
법천사	원만원	7/20	10,000
법행사	강길자	7/15	20,000
백월사	박인철	7/31	5,000
백월사	박인국	7/31	5,000
벽룡사	이희숙	7/3	10,000
삼일사	인법계	7/3	10,000

삼일사	원송	7/3	10,000
삼일사	무명씨	7/3	20,000
삼일사	원송	7/23	10,000
삼일사	인법계	7/23	10,000
선립사	정복지	7/23	10,000
선립사	심지장	7/23	10,000
성황사	원배려	7/28	50,000
수인사	공경원	7/8	10,000
수인사	김봉기	7/29	10,000
시범사	무명씨	7/31	200,000
실보사	이순옥	7/6	5,000
실지사	송우섭	7/1	5,000
실지사	이화수	7/20	10,000
실지사	박명성	7/22	5,000
실지사	정경자	7/27	5,000
실지사	이숙자	7/27	10,000
실지사	정우석	7/29	10,000
실지사	송우섭	7/29	5,000
운천사	박보경	7/15	20,000
자석사	이판도	7/22	15,000

정각사	조현필	7/2	5,000
정각사	구정희	7/22	20,000
정각사	김문수	7/23	10,000
정각사	윤선자	7/29	10,000
정각사	박정희	7/29	50,000
정심사	박옥란	7/29	20,000
지인사	허성룡	7/17	20,000
지인사	연동원	7/29	10,000
총지사	이수영	7/21	20,000
총지사	이인성	7/29	30,000
총지사	선도원	7/29	10,000
총지사	홍연수	7/29	10,000
통리원	지정	7/20	20,000
회음사	정옥식	7/29	10,000
회음사	수현	7/29	10,000
회음사	이준호	7/29	5,000
회음사	이지연	7/29	5,000
회음사	강승훈	7/29	10,000
회음사	류승태	7/29	10,000
회음사	무명씨	7/2	10,000

박말조	7/20	5,000
박주열	7/31	10,000
박호열	7/31	5,000
안효정	7/27	20,000
오일록	7/27	10,000
유복근	7/20	30,000
이갑진	7/27	10,000
이숙남	7/8	30,000
임자자	7/27	10,000
이혜원	7/29	5,000
임동수	7/23	20,000
장영택	7/6	50,000
최순전	7/6	20,000
최영래	7/14	10,000
최해선	7/20	20,000
최순전	7/31	20,000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의원명,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여긴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마탕가는 천한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느니라.”

- 김원각(시인)

파리가 저울에 앉는다면



저울 위
에 파리 한
마리가 앉
게 되면
가리키는
눈금은 변
함이 없겠
지만

그 무게는 거짓이 됩니다.

한 양동이 청정수에
한 점의 오물이 떨어지면
그 물은 폐수가 됩니다.

무심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노가 되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탐욕이 됩니다.

- 천룡스님 / 법주사 한주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남들은
잘 모르지
만, 저는
당당하게
보이려고
허리를
꽂꽂이 세
우고 휠체
어에 앉아
있습니다.
볼수 있
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자
기 사랑이고 그것이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 방귀희(작가. 방송인)

이달의 명상

수양하여 실천함에 힘쓰라



대관령 목장 (사진제공 : 백지순)

龍利(총리)엔 母居人前(무거인전)하고
德業(덕업)엔 母落人後(무락인후)하라.
受享(수향)엔 母職分外(무직분외)하고
修爲(수위)엔 母減分中(무감분중)하라.

총애와 이익을 얻는 데는 남의 앞장을 서
지 말고, 덕행과 업적을 쌓는 데는 남의 뒤
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림은 분수를 넘지 말고,
수양하여 실천함은 분수 이하로 줄이지
말라.
- 채근담(菜根譚)

VISUAL
법구경



제2화: 원망은 원망을
남고, 복수는
복수를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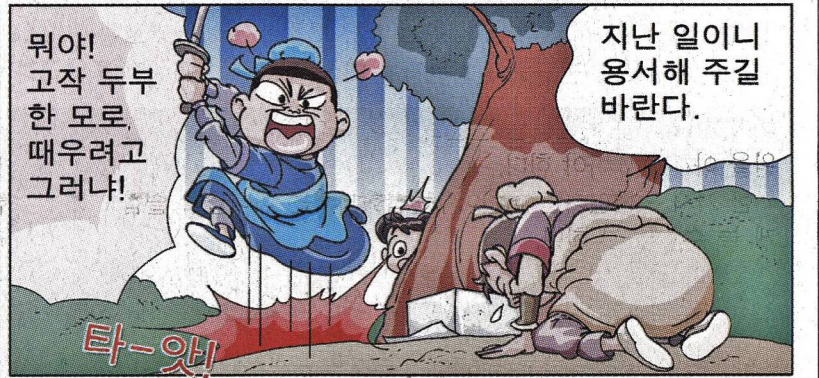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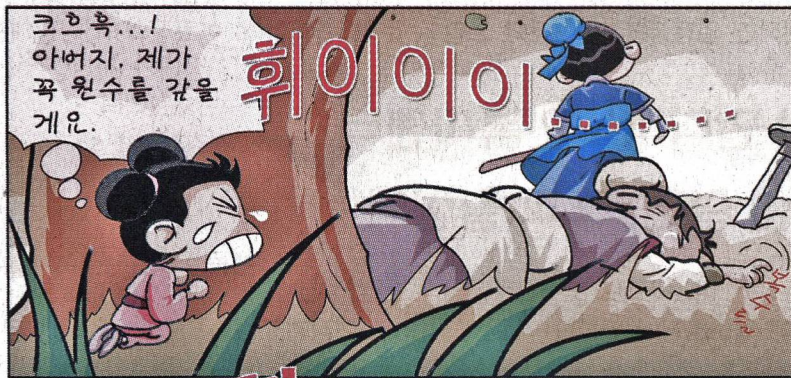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울라.KR
HTTP://DRAWING-RAHULA.OHPY.COM

부정적인 마음의 경우



긍정적인 마음의 경우



*두부 값도 올랐습니다.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증후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경희대,전북대,원광대 연구발표 -

* 가격: 복분자 엑기스 \W45.000 복분자주 \W30.000 * 2병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지상설법

정사유(正思惟)-바른 생각이란 무엇인가?



화령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사유는 정지(正志) 혹은 정사(正思)라고도 합니다. 정사유는 한 마디로 올바른 생각이며 올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가운데의 정경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바른 견해라고 한다면, 정사유는 하나 하나의 사안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경에 준한 바른 사유, 바른 의사(意思)로서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일으키는 바른 의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잡아

함경》에서는 세속의 바른 사유와 세속을 떠난 지혜로운 자의 바른 사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사유인가? 바른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속의 바른 사유로 번뇌와 집착이 있으나 선취로 향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세속을 벗어난 지혜로운 자의 바른 사유로 번뇌와 집착이 없고 괴로움을 바르게 다하여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게 한다.”

정경에서 본 것처럼 정사유도 세속의 것과 세속을 떠난 지혜로운 자의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속의 바른 사유는 번뇌와 집착을 다 버리지는 못했으나 선취(善趣)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을 벗어난 바른 사유는 지혜로운 자의 것으로서 번뇌와 집착을 벗어나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속의 바른 사유란 어떤 것인지를 경전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번뇌와 집착이 있으나 선취로 향하게 하는 세속의 바른 사유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생사를 벗어나려는 생각, 성냄이 없는 생각,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을 일러 세속의 바른 사유라 한다.

세속의 바른 사유로서 생사를 벗어나려는 생각을 출리각(出離覺)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냄이 없는 생각은 무애각이라고 합니다. 또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은 불해각(不害覺)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생각을 선취(善趣)에

태어나게 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여 삼선각(三善覺)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팔정도는 깨달음에 가까이 간 지혜 있는 자의 실천 덕목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고, 세속인으로서의 바른 실천 덕목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인으로서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못했지만

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는 그저 변화의 한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생과 사라는 것을 구분하여 보는 우리의 인식이 생사라는 것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항상 생사를 초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사는 것이 즐겁고 보

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이라는 데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을 다니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주위 경관을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에만 목적을 둔 사람은 굳이 산에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른 운동을 해도 산에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저 고개만 넘으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겠지 하면서 한없이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멈추어 서서 주위풍경을 둘러보고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 가도 한번쯤 살펴보고 가면 더 좋을 텐데 앞으로만 뚫다 달려갑니다. 그때와야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사유를 통하여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생사를 초월하려는 출리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사를 초월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인생살이에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친구도 사귀고 좋은 경지도 보고 푸른 하늘도 보고 느긋하게 즐기면서 들뜬 판에 소풍 나온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올바른 생각, 마음가짐

존재 실상은 변화의 한 과정일 뿐

팔정도를 실천함에 의하여 우리의 지혜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선각을 살펴봅시다. 세속인으로서의 바른 사유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에 의하여 전체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정사유에 의해서는 개개의 사실, 개개의 행동에 대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선각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출리각은 생사를 벗어나려는 생각을 말한다고 했는데,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곧 생사를 초월한다

람되게 생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생이라는 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애 집착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자기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착각하고 죽을 때까지 돈을 벌기만 할 뿐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친척이고 다 멀리 하게 되고 돈벌레처럼 돈만 지키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 추한 몸통이를 끼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혹은 자기의 삶이라는 데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들볶아 마음의 평화를 잡지도 못하지 못하고 괴로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 헛꽃임을 알아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자비하신 부처님, 여기에 모인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처음 님으신 법다운 수행과, 보살이 청정한 대중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의 모든 병을 버리는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중을 구하는 미래의 중생들이 그릇된 소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 법왕(法王)에게 큰 다라니문(陀羅尼門)이 있으니 그 이름이 원각(圓覺)이요, 모든 청정과 진여(眞如)와 보리와 열반과 바라밀(波羅蜜)으로써 보살을 가르치며, 모든 여래의 처음 수행은 다 원각을 의지해 무명(無明)을 끊고 불도를 성취한 것이요.

무명이란 무엇인가 하면, 중생들이 시작없는 옛적부터 갖가지로 뒤바뀌어 길 잃은 사람이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대(四大)를 자기 몸이라 하며 사물을 느끼는 인식을 자기 마음이라 합니다. 마치 병난 눈이 허공에서 헛꽃과 겹친 달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러나 실로 허공에는 꽃이

없소. 그것은 환자의 잘못된 집착인 것이요. 이 잘못된 집착은 허공 자체를 잘못 알 뿐만 아니라, 다시 저 꽃이 생긴 원인까지도 모르게 되요. 이로 말미암아 그릇되게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니, 이것을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은 실체가 없소. 마치 꿈속에서 가졌던 물건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공의 헛꽃도 없어지면 없어진 곳도 알 수가 없소. 그 이유는 생긴 곳이 없기 때문이요. 본래 생(生)이 없건만, 중생들이 잘못 생멸을 보게 되므로 생사에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이요. 여래의 첫 수행 단계에서 원각을 닦는 이가 이 헛꽃을 알면 윤회도 없고 생사를 받을 몸과 마음도 없을 것이요. 없애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이 없기 때문이요.

이렇게 아는 것도 허공과 같으며, 허공과 같은 줄 아는 것도 곧 헛꽃이요. 그렇다고 아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있고 없음을 함께 버려야 참으로 정각(淨覺)을 수순한다고 말할 수 있소. 왜냐하면 허공과 같은 성질이고 항상 움직이지 않으며, 여래장(如來藏) 가운데서 나고 죽음이 없으며, 지견이 없고 법계의 성품처럼

절대 원만하여 시방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요. 이것을 이통하여 초심자의 법다운 수행이라 합니다. 보살은 이것으로써 대승으로 향한 깨끗한 마음을 낼 것이며, 말세 중생들도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그릇된 지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원각경 문수보살장 圓覺經 文殊菩薩章》

진리의 여율

◇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

보안(寶眼)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자비하신 부처님, 여기 모인 여러 보살과 미래 중생들을 위해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는 것이며, 중생들이 깨치지 못하면 어떠한 방편(方便)을 써야 모두 깨치겠습니까? 만일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

마음이 아득하여 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미래 중생들을 위해 그 방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부처님은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그럼 자세히 들으시오. 그 대들을 위해 말해 주리다. 새로 배우

는 보살과 미래 중생이 여래의 청정한 원각심(圓覺心)을 구하려면, 생각을 바르게 하여 모든 헛된 것을 멀리 떠나야 할 것이요.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舍摩次)에 의지하여 계율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며 고요한 곳에 앉아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오.

“지금 내 이 육신은 네 가지 요소로 화합된 것이다. 털·손톱·이빨·살갗·근육·뼈·골수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침·땀·피·눈물·대소변은 물로 돌아갈 것이며,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가지 요소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이 허망한 육신은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이 몸은 원래 자체가 없는 것인데, 화합하여 형상을 이루었으니 사실은 헛것이며, 네 가지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육근(六根)이 있게 된 것이요. 육근과 사대가 안팎으로 합하여 이루어졌는데 반영하는 기운이 허망하게 그 안에 모이고 쌓여 반영하는 것이 있는 듯한 것을 이통하여 마음이라 한 것이요. 이 허망한 마음도 육진(六塵)이 없다면 있을 수 없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없을 것이요. 이 가운데 인연과 티끌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을 것이요.

모든 실상(實相)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하므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하므로 시방세계 중생의 원각도 청정합니다. 한 세계가 청정하므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여러 세계가 청정하므로 마침내는 허공과 삼세(三世)를 두루 싸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움직이지 않소.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법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도 않으며, 나

고 죽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소. 계행가지는 것을 공경하지도 않고 과계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이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처음 발심한 이를 업신여기지도 않소. 왜냐하면 온갖 것이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요. 이를테면 눈빛이 앞을 비추되 그 빛은 원만하여 사방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 자체는 돌이 아니어서 사방과 미움이 없기 때문이요. 보살과 미래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을 것이요. 원각은 널리 비치고 적멸(寂滅)해서 차별이 없소. 이 가운데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국토가 마치 헛꽃이 어지럽게 일어나고 스러지는 것 같아서 합하지도 떠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을 것이요.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아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소.

*사마타행: 마음가운데 일어나는 망념을 쉬고 마음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일

《원각경 보안보살장 圓覺經 普眼菩薩章》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웅진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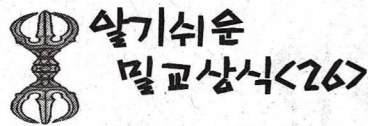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밀교의 수행③

불성(佛性)의 자각과 현실의 긍정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갖추어진 불성(佛性)의 존재를 철저하게 자각해야 하며, 그 자각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노력이 함께 부처님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대표하는 것이 곧 삼밀가지(三密加持)이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할 때 몸으로써 행위를 하고 입으로써 언어를 구사하여 자기의 뜻을 전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과 언어의 바탕이 되는 의식 혹은 넓게 말해 마음이라는 것이 심층에서 작용한다. 이러한 세 가지 방면의 활동을 불교에서는 삼업(三業)이라고 하며, 이 삼업의 작용은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며 고행(苦海)에서 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밀교에서는 이들 작용을 특히 삼밀(三密)이라고 하며, 삼밀행(三密行)이란 신(身)·어(語)·의(意)의 세 가지를 밀교 독자의 일정한 형식 하에서 가장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스스로에게 불성이 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그러한 상징을 통하여 나와 부처가 합일하도록 하는 수행법을 말한다. 즉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내재하는 불성을 불러일으키고, 삼밀행을 하는 순간만은 내가 곧 부처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하여 끊임없이 직관의 세계에 몰입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아가는 것이 밀교의 삼밀가지 수행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약한 우리의 불성을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 불성(佛性)을 비로자나불로 대표되는 제불보살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 곧 삼밀가지라고 할 수 있다.

『대일경소』에 의하면 우리가 정보리심(淨菩提心)을 얻고 깨달음에 들어 여래의 무진장세계를 보게 되는 것은 순수한 자력에 의한 것도 혹은 부처의 타력에 의한 것도 아니며, 수행자의 삼밀수행을 통하여 여래의 가지가 감응하여 여래와 수행자가 일체가 될 때에 즉신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곧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실하게 자기 마음의 실상을 바로 보아 분별이 없는 본불생제(本不生際), 즉 나고 멸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화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치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나와 여래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대일경』에서 “무진장세계의 세계가 비로자나불의 몸이나 말 혹은 뜻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일체에서 일어나고 멸하니 끝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즉 내가 본래부터 부처이지만 무명(無明)에 가려진 우리 중생들은 다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을 불러 일깨우기 위해서는 삼밀행을 통한 여래의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밀교 수행의 요체이다. 내가 조금씩 부처로 되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미 부처이지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밀행의 실천은 일상생활

보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삼밀행을 통하여 내가 부처라고 믿으면서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자연히 부처를 닮게 된다. 부처의 입장에서선 선도 악도 없고, 아름다움과 추함도 없다. 모든 분별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이라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그대로 비로자나불의 세계이며 글자 그대로 여여(如如)한 진여의 세계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밀교에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모든 괴로움을 떠나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떠난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은 분별이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분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곧 깨달음의 세계이고 진여의 세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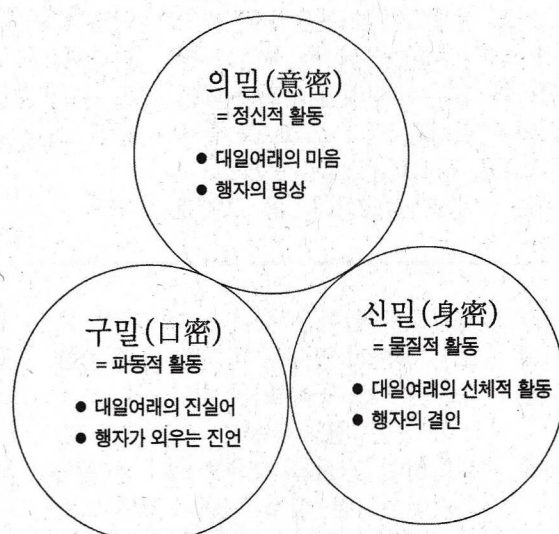
예를 들면, 밀교의 대표적인 경전의 하나인 『반야이취경』에는 ‘이성(異性)을 사랑하고 욕정(欲情)을 품으며 쾌락(快樂)에 몸을 맡기는 것도 청정한 보살의 경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대담한 현실의 긍정은 자칫하면 오해될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러한 저속한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욕망을 비롯하여 세간의 모든 법은 비

본성에 있어서는 모두 청정하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공(空)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분별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곧 나와 부처가 하나되는 경지이며 청정한 보살의 경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밀교에서는 적은 것에 만족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지양한다. 오히려 대욕대락(大欲大樂)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현실에 부딪힌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노력주의가 아니라, 그 모든 분별개념을 초월하여 부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관점 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밀교의 수행이며 실천이념이다.

화령(중앙교육원장 / 철학박사)

삼밀(三密)



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이 곧 밀교의 적극적인 현실긍정의 태도이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라는 철저한 자각이 있으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며,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과 집착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집착과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집착과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출가를 통하여 계율을 지키고 나를 둘러싼 속박을 하나하나 제거해 감으로써 언젠가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현교의 방식이라면, 밀교는 이와는 반대로 중생에서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입장에서 세상을

불교설화 <36>

보시의 공덕

부처님이 사위국 제타 숲 '외로운 이 돕는 동산'에 계시 때였다. 어느 날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무엇 때문에 보시가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고 찬탄하십니까? 저희들은 왜 그런지 알지 못하니, 원컨대 설해 주옵소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자세히 들어라. 이제 너희들에게 설해 주리라. 기억하건대 한량없는 과거세에 범예왕이 바라나시를 다스리고 있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이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았다. 코끼리·말·소·염소 따위의 짐승들도 번성하였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점성술이 가장 뛰어난 어떤 바라문이 왕에 이렇게 아뢰었다.

“지금 이 나라에 화성이 출현했으므로 12년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밤 낮 근심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루는 왕이 산사를 불러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백성들의 수와 맞추어 계산해 보게 하였다.

산사가 명령 ▶ 부처님께서 금강경 등의 여러 경전을 설하신 기원정사 터. (충청남도 공주시)

해 본 결과 한 사람에게 하루 한 되씩 준다면 6년까지는 공급할 수 있었다. 국왕의 몫은 두 되씩을 계산하였다. 이로부터 나라에는 가뭄이 들어 국가의 창고를 풀어 산사가 계산한 대로 곡식을 배급해 주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6년째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다. 이제 백성들은 모두 굶어죽을 판이었다. 이 사이에도 굶어죽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바라문이 왕을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다.

“이제 곡식이 떨어져 곧 죽게 되겠습니다. 원컨대 대왕의 땀에서 얼마의 양곡을 나눠 주십시오.”

범예왕은 이 말을 듣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없이 태어나야 할 미래에는 어떻게 그 추위와 더위, 그리고 굶주림과 같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범예왕은 곡식의 절반을 바라문에게 보시하였다. 보시하는 순간 범예왕의 지극한 정성에 감응하여 천상의 궁전이 움직였다. 이때 천상의 제석천이 감짝 놀랐다.

“무엇 때문에 나의 궁전이 흔들릴까? 나의 목숨이 끝나려고 이러한 변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관찰해 보았더니, 바로 범예왕이 굶주리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매우 어려운 보시행을 하고 있었다.

제석천은 범예왕의 그 마음이 과연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것임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밤 낮 근심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제석천은 범예왕의 그 마음이 과연

은 혹시 이 보시의 공덕으로 제석천 왕이나 범천왕, 또는 진류성왕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세상의 영화와 향락을 바라고 이런 보시를 하는 것은 아님니까?”

“나는 그런 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요, 오직 소원이 있다면 미래세에는 정각을 성취하여 저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의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것뿐이요.”

이 말을 듣자 병든 바라문은 “참으로 훌륭하오, 전에 없던 일입니다.”라며 찬사를 올리고 곧 본래의 모습인 제석천으로 되돌아왔다.

“대왕은 지금부터 백성들에게 명하여 빨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소서. 앞으로 이레 만에 틀림없이 단비를 내리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범예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왕은 즉시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였다. 과연 이레가 되자 하늘에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옛날과 같이 곡식이 풍성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비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때의 범예왕이 바로 나의 전신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항상 보시의 과보가 한량없다는 것을 찬탄하는 것이니라.”

〈찬집백연경〉

부처님은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끝이 없도록 찬양하고 칭송했다. 보시의 공덕이 왜 이리 한량없이 큰가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 알 것이다. 하잘 것도 없는 소유물도 남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물며 자신의 생명 연장을 포기하고 남에게 식량을 나눠준다는 것은 범부로서 선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보시는 바로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남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똑같이 바라보는 대자대비 사상의 발로인 것이다.

- 삼일화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주소 : 강남구 역삼2동 776-2
문의 : (02)3452-7485 (016-651-8053)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 (02)3452-7485(016-651-80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바라밀 소식

“배우는 마음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

- 신인록 보살님, 공부방 대중공양

안녕하십니까. 부산 정각사의 바라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늦었지만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지난 6월말 석식을 후원받았습니다.

석식을 후원해주신 분은 너그러우시고 자상하신 정각사 신인록 보살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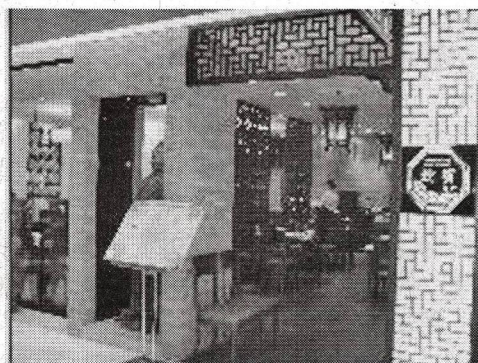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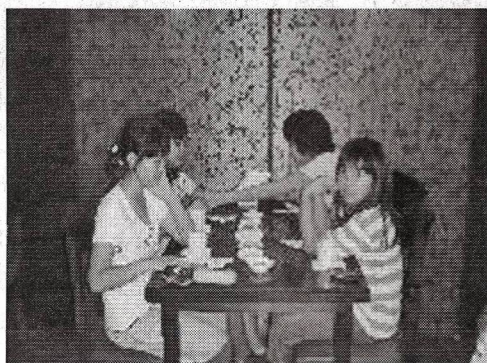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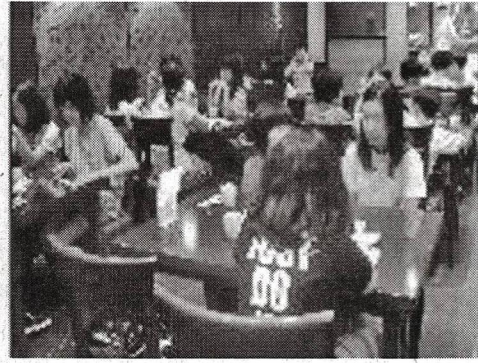
신인록 보살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동래롯데백화점 8층 영빈관에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맛있게 먹으며 보살님과 우리 아이들은 즐겁고 맛있는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아이들을 위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고 식사하는 동안 아이들 한 명 한 명 챙겨주셔서 부족함 없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바라밀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신인록 보살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라밀 아이들은 신인록 보살님의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과 배우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김수경



우리들의 이야기

오랜지간 참 좋은것 같다
20여년을 한결같이 매번 만나는 사람들
잘 나가면 직장 그만두고
갑자기 댕댕지를 키운다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댕댕지와 춤을~이란 농장을 하고 있는 한사람
얼굴은 비록 타고 해도 행복해 한다.

야생이 강한 댕댕지를 너무나 사랑하는사람
그렇게 빠지지 않고선 할수 없는일이야
진흙탕속에 뒹굴고있는 댕댕지들..
보기엔 정말이지 이뻐 보이지 않는다.

댕댕지 기름으로 비누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하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
토종닭이랑 오리와 오골계도 키운단다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으로 정을 주면 다투도 안다
하심다 짐승이라도 마음이 통하니 보다

어느날엔 아침에 가보니
토종닭 100 마리를 누가 훔쳐 가버리고 없
더라.
깃털이 너무나 아픈 닭들이라고
사랑하면서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춘다.

찾으려 들면 금방 찾겠지만 서운해도 그냥
뒀다 하신다..
말만 들어도 서운 하더라..

어떻게 사는게 행복한 삶인지
새삼스게는 하루였다
자기가 하고 싶은일 하면서 살수 있다는것..
-혜덕화(충지사)

새활상식

◀ 쌀뜨물을 설거지와 청소로 활용하
기

쌀겨 속의 미강유 성분은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쌀뜨물은 기름기 있는
그릇을 세척할 때 효과적이다. 또한
쌀뜨물은 유리 창문의 찌든 때나 거울
면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분
무기에 넣어 뿌린 뒤 마른 걸레나 신
문지로 닦아 내면 깨끗해 진다. 걸레
에 쌀뜨물을 묻혀 마루를 닦으면 왁스
를 입힌 듯 윤이 난다

◀ 쌀뜨물을 요리에 활용하기

쌀뜨물은 요리 재료의 짧은 맛, 아린
맛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쌀뜨물
을 토란, 우엉, 죽순을 조리할 때나 된
장찌개, 미역국, 김치찌개 등의 국물로
사용하면 담백하고 구수한 맛을 낼 수
있다. 또한 자반 고등어를 쌀뜨물에
담갔다 조리하면 육질이 부드러워 지
고 짠 맛을 조절할 수 있다. 짠 맛이
많은 것은 10 분 정도, 덜 짠 것은 잠
시 담갔다 키친 타월로 물기를 닦은
뒤에 조리한다.

◀ 쌀뜨물을 미용에 활용하기

쌀뜨물을 미지근하게 데워 세안하면

◀ 매일 담긴 물로 우유 설사 방지
우유만 마시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불편한 사람은 우유 한 컵에 매일 담
긴 물을 4 스푼 정도 잘 저어 마
시면 맛도 좋아지고 속도 편하다. 그
러나 위산과다나 위염, 위궤양이 있는
사람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 매일 담긴 물로 고기 누린내 제거
돼지고기나 닭고기에서 누린내가 날
때는 매일 담긴 물을 반 컵 정도 넣고
버무린 다음 조리해서 먹으면 좋다.
생선에도 매일 물을 조금 가하면 비린
내를 줄일 수 있다.

◀ 매일 담긴 물로 살균 작용
날 생선 또는 생선회사 육회, 홍어회
를 먹을 경우 매일 담긴 물을 반 컵
정도 넣고 버무린 다음 먹으면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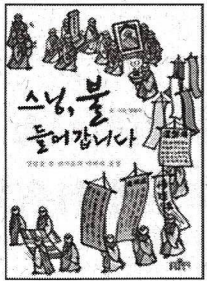
이달의 추천도서

일생에 한 번은 순례여행을 떠나자

경민선 지음/21세기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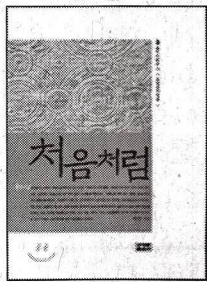
일본인들이 일
생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한다
는 순례길, 산티아
고와 함께 세계 문
화 유산으로 등록
된 영지 참배코스
를 소개한다. 시코
쿠 섬 내의 88개 불교 사원을 돌아보
는 이 길은 12세기부터 이어져왔으며,
그 거리는 1200km에 이른다. 건강악화
를 계기로 여행을 시작한 저자는 가장
훌륭한 예술치료로 도보여행을 꼽는
데, 자신이 직접 경험한 회복과 치유
의 길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



다비장에서는 수
복했던 연화대가
야트막해질 때까
지 사람들이 서성
거리는데서, 저자
는 가진, 남들이
그려 놓거나 그리
고 있는 그림자의
넋이와 두께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
다. 영결식장과 다비장, 운구행렬과 타
들어가는 연화대에 드러났던 큰스님들
의 그림자를 보고 느낀대로 어스름하
게 그려놓았다는 그의 표현처럼 이 책
은 단순한 '다비장' 풍경이라기보다는
열반하신 큰 스님들이 평소에 우리에
게 해왔던 이야기들의 묶음이라고 보
아도 좋을 것이다.

처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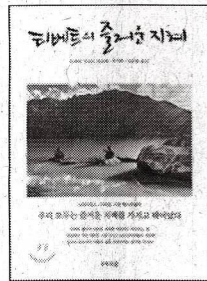
지안 스님/조계종 출판사



있어서 사미과(沙
彌和)의 기본 교재
로 사용되어 수행
에 임하는 기본자
세와 정신을 가르
쳐 왔다.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장
이신 지안 스님은
이 책 『처음처럼』에서 일반인 혼자서
도 쉽게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단어와 문장을 현대적으로 집
필하였다. 『처음처럼』의 한문 원문은
강진 무위사에서 발견된 「1570년 무위
사 초발심자경문 목판본(木版本)」을
저본으로 하여, 한문 원문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저본과 한
문 원문이 다른 것은 부록으로 저자의
해설을 덧붙였다.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

윤게이 민규리 린초체 지음/류시화
옮김/문학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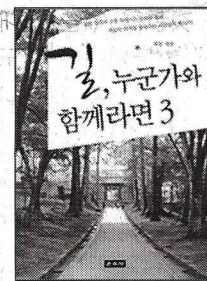


작가 한마디--
1998년 서구 세계
에서 처음으로 명
상을 가르치기 시
작했을 때 나는 그
들이 현대문명의
온갖 편리를 누리
고 있기 때문에 자
신들의 삶에 훨씬 더 큰 자신감과 만

족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순진하게
추측했다. 하지만 형태의 원인은 비록
다들지라도 네팔에서 본 것만큼 많은
고통이 그곳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
달았다. 나는 이 현상에 깊은 호기심
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초청한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은
모든게 훌륭합니다. 당신들은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런데 왜 이토록 많은 불행이 있는거
죠?”

길,누군가와 함께라면

혜철지음/운주사



이 책은 범법행
위를 ‘저지르고’ 사
회와 일정기간 격
리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참회의 목
소리와 부모에 대
한 애절함, 종교에
의 귀의 등의 모습
을 잘 보여주고 있다. 늙은 어머니(시
부분 대상), 그리운 어머니(호 편지 부
문 대상) 등 당선작 7편과, 호 편지 10
편, 신행수기 5편, 수필 7편, 시 12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절
절하고 가슴 뭉클한 사연들과 뉘우침,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진실
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거리의 박물관’ 인사동(仁寺洞)

불교상식⑥

‘거리의 박물관’, 바로 서울 종로 2
가에 위치한 인사동 길이다. 길을 따
라 가노라면 고서적상(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통문관도 있죠), 골
동품상, 낙차집, 등 그 외에도 불만
예술품들이 즐비합니다. 인사동엔 우
리나라 최초의 공원인 탑골공원이 있
는데, 이곳은 ‘원각사(圓覺寺)’란 큰
절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보물 3
호인 원각사비와 국보 2호인 10층 석
탑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큰 절

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대사동(大寺
洞)’, ‘사동(寺洞)’, 혹은 ‘절 골’이라
불렀고, 큰 탑이 있다고 해서 ‘탑사동
(塔寺洞)’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인사동 길은 조선시대 관청
이었던 관인방(寬仁坊)의 ‘인(仁)’자
와 대사동의 절 ‘사(寺)’자를 딴 것이
라고 합니다. 자, 불교의 향취가 배어
있는 거리 인사동, 오늘 한 번 가보세
요.

-윤우재 기자



삼 인 상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길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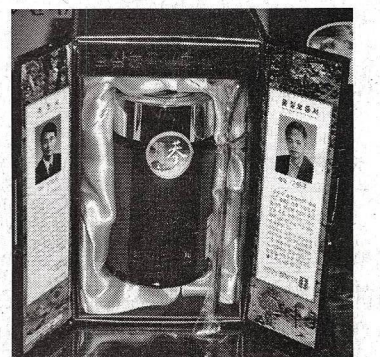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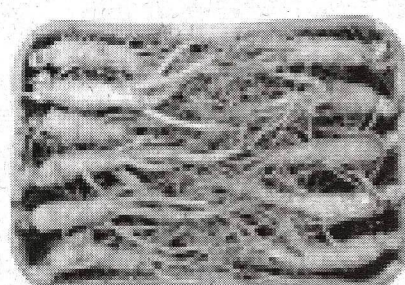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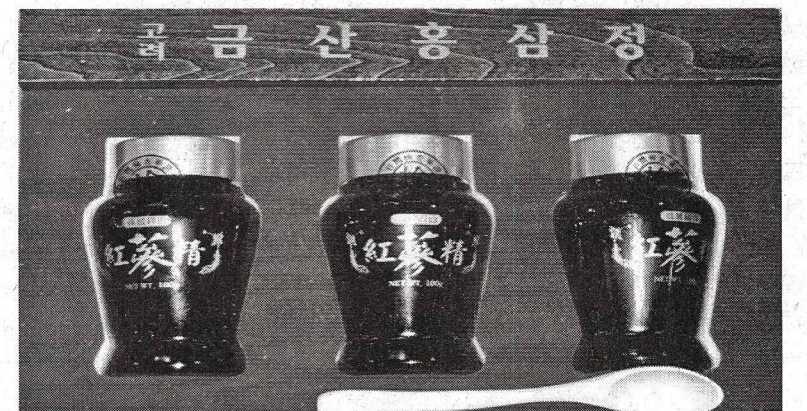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
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
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
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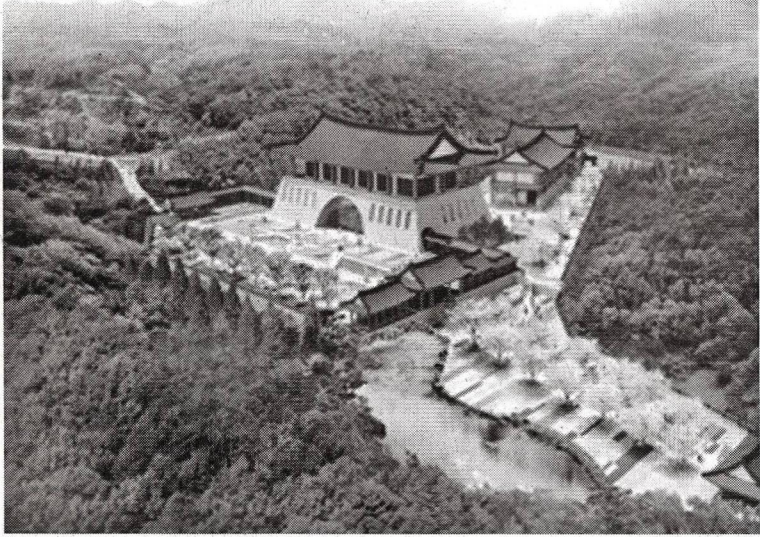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
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
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03-24 동원시장내 가-42호

10·27법난 교육관 예산1500억원 요청키로 “피해자 범위 보상 현실화 필요”, “법 개정 국회통과 시급”

■조감도-1



◇10·27법난 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 건립할 역사교육관 조감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가 7월13일 회의를 거쳐 역사교육관 건립예산으로 1500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역사교육관 건립은 10·27법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종단과 스님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2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후 명예회복심의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도 지난 4월22일 가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종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관은 10·27법난 의미를 알리는 공간인 동시에 호국불교의 역사성과 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애국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꾸며 나가야 한다”며 교육관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명예회복심의위 역시 역사 교육관을 과거 정부에 의해 자행된 종교탄압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회통합의 상징적인 매개체로 꾸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심의위는 연말까지 건립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3년 6월까지 역사교육관 건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현재 10·27법난 특별법은 2010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하고 교

육관을 건립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법의 효력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더불어 피해자 범위 현실화와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피해자를 ‘법난으로 상이한 입은 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사망자에게는 명예회복 밖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종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관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역사 교육관과 관련해 시행령 제6조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관 건립과 더불어 기념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기념사업을 담당할 법인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일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명예회복심의위는 10·27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6월3일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41명이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 △피해자 범위 확대 △기념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해 명예회복 심의 위원장 원학스님은 교육관 건립 예산 확보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10·27법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원학스님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위원회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역사교육관이 여법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원학스님, 세영스님, 삼보스님, 장수만 국방부 차관,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윤원호, 허남오, 조남진, 이명국 위원 등 재적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참석했다.

명예회복심의위가 요청한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예산은 향후 국방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게 되며, 국방위원회와 예결특위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리지불교공예사 이남형 대표, 장한 한국인 賞 총지종 불단장엄 전담 시공 등 기술 인정



▲ 연리지불교공예사 이남형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제8회 장한 한국인 賞’ 기술인에 선정돼 금상을 수상했다.

연리지불교공예사 이남형 대표가 7월 17일 오후 5시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장한 한국인 賞’ 기술인에 선정돼 금상을 수상했다.

이 대표는 불교공예문화진흥과 불단전공 공예기술전승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남형 대표는 “불교 공예를 시작하면서 옛 장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혼을 불교공예에 도입하고자 노력해 온 것이 이번 상을 있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불교 공예의 소신과 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어른분들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후대에 유산으로 남을 공예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신문사가 주최하고, (사)대한무궁화중앙회가 특별후원한 ‘장한 한국인 賞’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계를 비롯한 총 11개 부문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고, 사회에 널리 공표하여 한국의 표상이 되는 자랑스런 일꾼상을 정립하고자 제정됐다.

송광사 불교 고문헌자료, 전남대에서 디지털화 착수 일반인도 문화재급 유물 열람 쉬어져



조계총림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경전과 고문헌, 불화 등 불교관련 자료를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스님)와 전남대 도서관(관장 이정애)은 7월 21일 송광사 묵우헌에서 ‘고문헌 디지털화 및 이용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맺고 약정서를 교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자료를

전남대에 위탁하고, 전남대 도서관에서 서지 및 전자형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대는 이들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유, 무상으로 웹서비스를 하며, 수익금은 양 기관이 공동 분배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은 대부분 문화재급 유물로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며 “숙원사업인 ‘고문헌의 디지털화’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이뤄지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주선한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도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고문헌을 대부분 박물관 수장고에 쌓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문헌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들은 불교학은 물론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 도서관 이정애 관장은 “송광사 고문헌 디지털화를 계기로 전남대가 국내 최대의 불교학 자료를 구축해 불교학 연구에 기여 하겠다”며 “시설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찰의 고문헌 자료를 대학 도서관에서 위탁·보관하는 사업도 펼쳐 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날 영암 불갑사와 고문헌 디지털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흥 보림사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을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사찰증축 규모 그린벨트에서 완화

사찰수목장 허용

진입로 개설 등

정부가 지난 7월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제출, 원안결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증축 규모 확대, 사찰 진입로 개설 허용, 사찰

수목장 허용, 건축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증축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국토해양부화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항 신설(특별조치법 9조2항)을 통해 전통사찰의 진입로 너비를 4m 이내로 하되, 안전확보지역은 8m까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담당자는

“수목장을 사찰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과 전통사찰에 적용된 건축법을 전면 배제해 건축법 등의 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던 건물을 양산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찰 부지내에서 발생하는 건물증축에 따른 훼손부담금도 앞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7일 공포된다.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순길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 가 공동 집필 ...
	속자대명왕전선<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절찬 경전으로 본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산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 였으며,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 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한국불교의식의 대명사인 천수경에서 왜 처음과 끝이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비법을 밝히고 있으며 본 심요점을 통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 하고 있다.

교계소식

스님에 대한 신뢰도 18위...직업군 중위권에 머물러

신부 11위, 목사 25위- '시사저널' 조사결과

순위	직업군	신뢰도	순위	직업군	신뢰도	순위	직업군	신뢰도
1위	소방관	92.9	12위	문화예술인	74.5	23위	공무원	55.2
2위	간호사	89.9	13위	대학교수	72.1	24위	시민단체활동가	55.0
3위	환경미화원	89.2	14위	관사	65.9	25위	목사	53.7
4위	직업운동선수	82.1	15위	전화안내원	65.5	26위	변호사	53.6
5위	의사	80.9	16위	운전원	64.5	27위	기업인	51.9
6위	한의사	79.7	17위	방송인	64.5	28위	기자	49.7
7위	초중고교사	79.5	18위	승려	64.0	29위	연예인	40.9
8위	은행원	79.1	19위	회계사	62.5	30위	증권업종사자	39.0
9위	이/미용사	77.4	20위	경찰관	60.4	31위	보험업종사자	36.6
10위	프로그래머	74.8	21위	검사	59.1	32위	부동산중개자	28.2
11위	신부	74.6	22위	세무사	56.0	33위	정치인	11.7

◇각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표

스님들의 신뢰도가 전체 33개 직업군 가운데 18위로 조사됐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한국 언론 최초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조사한 직업 신뢰도 결과를 7월 27일 발표했다.

조사는 통계청 <2008년 사업체 고용 동향 조사>를 참고해 선정한 33개 직업군을 인구비례에 따라 전국 16광역시에 살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マイナス 3.1%이다. 조사결과, 신뢰도 1위는 소방

관(92.9%), 2위 간호사(89.9%), 3위 환경미화원(89%)이며, 꼴찌는 정치인(11.7%)이 차지했다. 종교인 중에서는 가톨릭 신부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었으나, 은행원(8위), 미용사(9위)보다 낮은 11위였다. 신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승려는 18위였고, 목사는 25위였다.

스님의 경우 '신뢰 한다' (64%)라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 (32.4%)라는 응답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에서 스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46.8%)가 '신뢰한다' (4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스님을 가장 불신하는 연령대는 30대(57.2%)로 조사돼 청년층에 대한 포교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부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신부의 경우는 '신뢰한다'라는 응답(74.6%)이 '신뢰하지 않는다' (20.6%)라는 응답보다 세 배 가량 높았다. 특히 가구소득이 월 4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신뢰한다는 비율(82.2%)이 높았다.

<시사저널>과 미디어리서치는 "천주교는 특별한 안티 세력이 없고, 정치적 색깔이 없어 신부라는 직업의 신뢰도가 높게 평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故 김수환 추기경의 신성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과 미디어리서치는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스님과 신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 "개신교에 대한 불신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이어진 경우 등"이라며 "예수 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배타적인 형태의 설교는 일반인들의 반감을 불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말교회 인사들을 중요한 공직에 대거 임명했다는 보도가 연이었던 것도 '목사'가 신뢰감을 잃은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스님의 신뢰도가 전체 33개 직업군 중 중위권에 머물고, 30대에서 크게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스님은 "승가가 사회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 절에서 찾아오는 신도만 받는 수동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특히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30대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유지재단 수익사업 가능

불교용품, 테마상품 판매 등 법 마련

조계종 중앙종무기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사장 지광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원학스님)는 "불교 문화 홍보 등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자, 관련 조항을 삽입한 정관 변경 안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등 유지재단 소유 시설에서의 합법적인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 사찰음식점 운영을 비롯해 각종 불교용품 및 템플스테이 테마상품 판매 등 불교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어서 향후 종단 재정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정관은 우선 제4조 2항으로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



◇조계종 유지재단에서 짓고 있는 국제템플스테이센터 조감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로 넣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종류로 국제포교활동과 포교·교육 사업을 추가했으며(4조 1항) 18조에 법인의 경비로 사업수입을 명시했다. 유지재단은 지난 6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이와 같이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지재단은 정관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운영규정 제정, 사업

자등록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 유지재단은 종단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 법인으로 1948년 설립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이 모태다. 2004년 2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조계종 한해 예산은 200억 정도인데, 만 300여명의 스님과 3000여 사찰, 1700만 불자를 거느린 종단의 살림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지홍스님, 불교출판문화협회장에 선출

한사람이 108권 책읽기, 도서관 만들기 등 추진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원택 스님이 5월 20일 회장직을 사임함에 7월 16일 오후 5시 임시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불교출판사 대표 지홍 스님이 선출됐다.

불교출판문화협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지홍 스님은 "평소 출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출판일을 맡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역대 회장들에 비해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중책을 맡게 됐으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홍 스님은 또 "원택 스님의 노력을 받아 할 수 있는 일을 도출해 나가며 서로 협업체를 일을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불교출판문화협회와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갖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홍 스님은 앞으로 △불교출판문화상 및 '올해의 불서 10' 선정에 '독자상'을 신설해 개인



◇이랫줄 왼쪽 두번째에 앉아있는 지홍 스님

이나 단체 수상 △사찰도서관 지원을 위한 불교도서전 회수와 장소 등 다양화 △한 사람당 108권의 책읽기 △종단과 협의 하에 도서관 만들기 추진 △파라미터 조직을 통해 각 학교에 불서 비치하기운동 △협회 사무실 만들

기 등을 추진사업으로 발표했다. 초대부터 회장을 맡아왔던 도서출판 장경각 대표 원택 스님은 "그동안 회장직을 맡게돼 좋았다"며 "앞으로도 불교출판문화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우수학술도서 불교관련 4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우수학술출판활동 고취 및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정하는 올해 우수학술도서 382종 가운데 불교도서는 4권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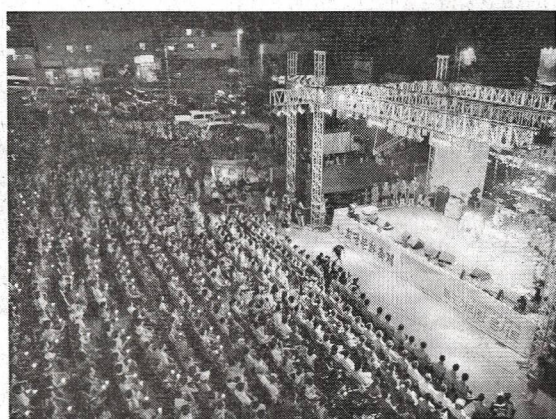
7월 16일 발표된 선정결과에 따르면 <불타의 입멸에 관한 연구>(안양규, 민족사) <선종과 송대사대부의 예술정신>(명법스님, 주)씨아이알) <일본불교사 근대

>(카시와하라 유센/ 원영상, 윤기업, 조승미 역, 동국대학교 출판부) <고려 말 선사의 미학>(이종근, 불광출판사) 등 4권이다. 이밖에도 불교 관련도서로 <교류로 본 한국 불교 조각>(임영애, 학연문화사),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최영호, 경인문화사), <도정신치료 입문>(이동식, 도서출판 한강

수), <삼국유사와 문화코드>(김영수, 일지사), <삼국유사의 문학적 탐구>(강재철 외, 이화문화사)가 각각 우수학술도서로 뽑혔다. 문체부는 선정된 도서별로 1100만원씩을 들여 구입해,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병영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진각종 7월 29일 - 30일 울릉도서 회당문화축제 개최

'생명'과 '독도' 주제로 지역발전과 평화통일 염원



◇2008년 공연 모습

대한불교 진각종(총리원장 혜정)은 7월 29일, 30일 양일에

거쳐 울릉도에서 2009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독도아리랑-진호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당문화축제는 29일에는 나라발전과

30일은 평화통일과 역사회복을 염원하는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독도 사진전 등 울릉군민 등을 위한 참여체험행사 와 군 장병 초청행사, 위문전달식 등 특별행사도 이어졌다. 회당문화축제는 지난 1902년 울릉도에서 탄생한 진각성종 회당 대중사를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울릉도 최대의 전국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정착했다.

안녕을 염원하는 화합의 장인 생명사랑콘서트가 행해졌고

서울보증보험

LIG 손해보험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 - 9921 - 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www.metlife.co.kr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서울대은퇴설계전문가과정수료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방생법회 참가기

방생법회로 부처님의 가피가 모두에게...

• 방생 : 다른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새·짐승 따위의 산 것들을 사서, 산에나 못에 놓아 살려 주는 일.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불교도들이 해마다 일정한 때에 방생을 하고자 방생계(放生契)라는 것을 조직하여 방생회(放生會)를 열어 오고 있다.

방생은 살생(殺生)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생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행(善行)이고 방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일로 권장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생의 근거는 《금광명경(金光明經)》에 의하는데, 이 일을 행하는 시기는 보통 음력 3월 3일이나 8월 보름이었고 근래에는 일정하지 않다.

총기 38년 하반기 49일 회향불공을 마치고 인간 방생과 함께 어류 방생도 겸하게 되었다. 올해는 또 운달이 들어 있기에 삼사순례의 의미도 깊다 한다. 그래서 총지사 보살님들께서 설악산 신흥사와 낙산사 그리고 휴휴암으로 순례를 떠나게 되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서울 경기 교구회에서 함께 하는 행사지만 올해는 총기 사만 따로 가는 것이라 어느 해 보다 의미 있는 것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맑

은 우리를 반기는 듯하고 팔당호의 잔잔한 물살은 여인에 마음마냥 살랑 된다.

44번 국도는 오늘따라 한산하기만 하고 설악산 가는 길은 언제나 가슴이 설레이고 보고픈 남이 라도 기다는 듯이 말이다. 차안에서 차량 공식 불공을 마치고 스승님께서 그저 감사 하다고 인사 하시고 회장님께서는 동참 하신 모든 보살님들께서 오늘 하루 뜻

하게 놓아 두질 않았다. 그래서 조용하게 행사는 시작되었다. 1차 진행자는 처음으로 방생을 함께하는 교무님께서서 보살님들을 위해 게임을 많이 준비해 오시고 오늘의 기쁨조라 할수 있는 분이다. 퀴즈 대회다 O X 게임과 주관식 등등.. 호응이 너무 좋다. 웃으면서, 즐기면서, 풀면서 어느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하다.

이렇게 즐겁게 시작한 우리 일행은 신흥사에 도착 했고, 비온 후라 설악의 산은 모두를 우리에게 내어 주었다. 울산바위도 흰 히 보이고 푸르른 산은 말없이 반기고 일주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음 내려놓을 준비를 한다.

청동 좌불 앞에서 참회의 3배를 하고 간단히 기념사진도 찍고 돌아섰다. 부처님을 진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잠시 사천왕문 앞에 오면 누구나 마음의 문을 내려놓는다 하지 않는가. 나 역시 작은 마음 하나쯤 내려놓고픈 마음으로 사천왕문 앞에서 절을 올리고 절마당으로 들어 선다.

극락보전엔 천수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었고, 늘 자신을 참회하는 3배를 올리고 지장전에서

는 1재를 맞아 극락왕생을 서원하는 재를 지내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잠시 왕생성불을 기도해 본다. 삼성각을 돌아 초록빛 설악의 향기를 뒤로 하고 비바 세들러 물 좋고 경치 좋은 설악산 자락 밑에서 맛있는 점심 공양을 하고 낙산사로 향했다.

기습 이쁜 낙산사.. 예전 모습은 아니라고 많이 복원이 되었고, 흥련암의 아름다움과 근엄함은 여전하였다. 하루 종일 신묘장구대다리를 염불하는 곳. 잠시 법당에 앉아서 다라니를 외우고 나오는데 차안에서 많이 움직



7월 16일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열린 총지사 방생법회.

여서 일까? 잠시 피곤함이 몰려온다.

지금 잠시라도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푸른 동해바다를 보면서 의상대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마셨다. 짭짤한 맛을 느낄 정도로 바닷바람은 우리에게 내어 주고 멀리 또 날아간다. 다른 보살님들께서는 해수 관음보살님과 원통 보전을 둘러보고는 혼자 지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이제 방생을 할 장소 휴휴암으로 출발 했다. 관음보살이 누워 계신 곳이라 쉬고 또 쉬는 뜻을 가진 휴휴암... 휴휴암 앞바다의 연화대로 가서 절에서 잡아 놓은 우럭 치어를 사서

방생을 하였다. 절집에서 고기를 사서 어항에 가두어 두고 보살님들께 방생할 고기를 판다.

참으로 묘한 감정이 휘몰아 쳤다. 여기는 다른 고기를 방생 할 수 없단다. 절에서 파는 고기만 방생 할 수 있다

고 뭔가 상술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방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마음도 생긴다.

연화대에서 방생한 고기들은 수초들이 무성하여 금방 바다로 돌아가질 못한다. 수초들이 얼마 품 갈아서 그럴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휴휴암 바닷가에 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어 떠나질 않았다.

찾아온 중생들이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한인지 절 앞이라 부처님의 인연으로 들어 온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이 하긴 하였다. 바다를 뒤로 하고 지혜 관세음 보살상을 찾았다. 지혜 관세음보살상엔 지혜를 깨우침인지 책을 들고 계신다.

지혜보살님께 보시를 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는데 심시일반이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라 좀 놀라웠다. 우리 종단과 비교가 되는 장면이다. 절 마당에 있는 범종이 울려 퍼진다.

절을 찾은 사람들이 사바의 번뇌를 범종에 달아 놓고 가라는 의미 인지 범종을 칠수 있게 하고 있었다. 나 역시 동참 하여 범종을 쳐 보았다 잠시라도 번뇌를 내려 놓고픈 마음이다.

삼사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마음은 역시 가벼웠다. 부처님의 가피를 조금이라도 받은걸까? 부처님은 내 법의 그릇만큼 나타나신다고 한다. 똑같이 절을 하고 똑같이 법문을 듣지만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한다. 부처님의 법은 내 마음의 그릇만큼 들린다 한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많이 주시려 해도 모두 자기 그릇만큼만 담아 갈뿐이라고..

난 오늘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함께 하신 스승님과 보살님들 너무 감사 합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합시다. 옴 마니 반메흠. - 최해선(총지사)



은 비가 내렸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보살님들의 얼굴엔 환희심이 가득 하시다 장마철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아마도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런지...양수리를 지나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마주 하는 두물머리도 오랜만

깊은 방생과 순례가 되길 바라신다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하루 되시면 한다고 인사 말씀을 하셨다.

버스는 설악으로 달리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산은 가만히 불공만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명왕 진언 수지하여 소원성취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은 진언 중에 으뜸입니다.
육자진언을 외우거나 몸에 지니면 무진번제와 청정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무량한 불보살님과 호법신장님들이 옹호하기에 모든 재액들이 소멸되고 내외가 평안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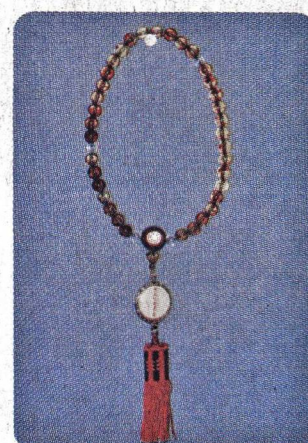
차량스티커(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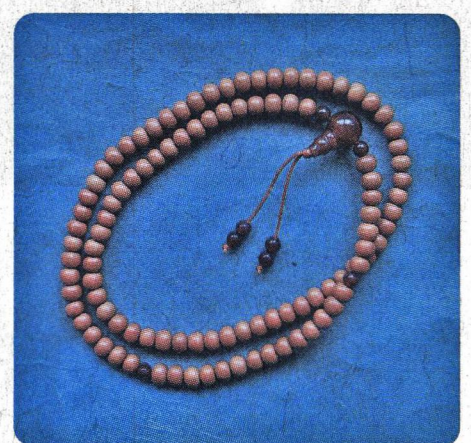
금박다라니 ₩ 3,000



금박다라니(뒷면)



차량용 염주 ₩6,000(자주색, 카키색)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충지사 퀴즈대회

퀴즈, 다함께 풀어 봅시다!

• 불교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 왜냐하면?

- 돌보기
 - ☞ 인간의 내면을 크게 비취주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진영언
- 인과응보
 - ☞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고 복을 짓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이인성
- 예술
 - ☞ 불교는 사람의 내면세계를 다듬어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진경석
- 정진
 - ☞ 정진을 하지 않으면 지혜를 모른다. 정진 가운데 불교의 진미를 알 수 있다. 밝은 지혜가 일어나니까 -김성민
- 어머니 마음
 - ☞ 인자하신 마음으로 모든 자식, 병든 자식을 잘 인도해 주신 어머니같이 불교도 누구나 병든 마음 좋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으므로... -이금복
- 과학
 - ☞ 믿으면 믿을수록 성불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신현정
- 사막의 오아시스
 - ☞ 삶의 감증을 해소하여 주기에 -신성희
- 옥석(玉石)
 - ☞ 닦을 수록 빛이 나니까 -최영해
- 나침반
 - ☞ 인생의 가야할 길을 알려 주고 인도해 주니까 -손경옥
- 웅달샘
 - ☞ 마음속에서 항상 솟아 오르니까(퍼내면 퍼낼 수록) -박정희
- KTX
 - ☞ 부산으로 가는 방법(각 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은 자전거, 버스, 비행기, 열차, 걷기(여러종교) 등 방법은 많지만, 그중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사람을 동시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KTX가 최고이듯 -박종한

불교는 최고 목표에 도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제트기, 로켓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준비과정도 까다롭습니다. -박종한

• 금고

- ☞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서, 귀중한 보석, 돈, 채권, 등 가장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것이 금고이듯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수행한다면 악업을 짓지 않고 탐진치 삼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선업을 쌓고 자신의 업보와 수행으로 절대적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의 세계가 됩니다. 이 생애 조금 부족



하면 다음 생애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전생에 부처님을 믿었던 것은 부처님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입니다. -박종한

• 오직 '내 마음의 발'이라고 생각할 니다.

☞ 나의 본성 즉 자아와 자성을 찾고 괴로움과 슬픔 번뇌의 망상을 다 떨쳐 버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을 닦고, 참회하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수행의 터전으로 우리 육신은 대자연과는 둘이 아닌 하나로 어우러져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주인이요, 본체이며 당체인 나를 찾기 위해 즉 나의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높고 병들어 죽는 시간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영원한 광대무변한 나의 참모습을 알도록 깨우쳐 주신 것이 부처님의 진리요, 참 종교이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의 본질을 찾아 지도해 주는 종교가 불교라 합니다.

이러한 대자비의 은혜를 마음껏 닦고 베풀며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미움도 원망도 다름도 없는 진정한 부처님의 진리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인숙

• 보물창고

- ☞ 비밀통로에서 부처님과 항상 대화하고 속삭일 수 있으니까 -정인숙

• 마음의 살림살이

- ☞ 부지런히 집안 살림을 잘하면 집안이 깨끗해 지고 윤택해 진다. 마음도 이와같이 매일매일 구석구석 잘 닦으면 마음도 깨끗해 지고 윤택해 지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과 매일매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윤정옥

신행체험

188 = 365 ? !



박 종 한 교무
(통리원)

성도합시다(안녕하세요). 종단 통리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박종한 교무입니다.

제목이 188=365인데 숫자의 의미가 궁금하시지요? '365는 1년의 일자 수임을 알겠는데 188은 무엇일까?' 188은 12달 동안의 자성일수, 월 초불공, 그리고 상·하반기 49일 불공, 종단에서 정한 기념일등 공식적으로 표시된 일자를 달력에서 세어보았더니 나온 숫자입니다. 백분율로는 약 51%를 차지합니다. 즉 일년의 반이 넘는 일자를 서원당에서 '옴마니반메홀'을 염송하고 108 염주를 돌리면서 불공을 드리는 공식적인 합산일자입니다. 제가 볼 때 일요일인 자성일만(1년 약52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보살님들께서 자성일은 서원당에 당

보살님께 일심으로 서원하고 염송 드리는 정진모습에 제가 보살님들께 대단함과 존경함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살님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고 느꼈을까요? 먼저 몸이 불편하고 날씨도 덥고 길이 멀어도 서원당에 오시는 굳은 의지와 불단에 정성스럽게 예를 올리고, 한마음으로 '옴마니반메홀'을 염송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 앉았다 하면 1-2시간은 보통으로 염주를 돌리면서 자신 보다는 가족을 위한 기도와 또 남을 위한 동참기도를 보면서 보살님들 마음이 왜 깨끗해 질 수 밖에 없고 모습이 자상한 연유를 알겠습니

또 불공 할 때는 염속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염주수행 하는데, 말

보살님들의 매일 정진기도는 제 신행의 본보기입니다

연히 나오고 또한 월초불공 및 공식불공일지도 모두 절에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왜 188과 365가 같을까요? 제가 두 숫자를 같다고 보는 이유는 공식일정과 관계없이 매일 같이 서원당에 오셔서 참회기도, 가족기도, 동참기도, 조상천도기도, 자신을 깨치는 수행 등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설령 서원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하루하루 수행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같다는 느낌표를 넣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보살님들을 볼 때 왜 얼굴이 하얗고 유유 빛처럼 뽀얀 것일까, 나이보다 젊게 보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위의 숫자로 대신하여 알았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몇 시간씩의 수행과 기도가 쌓여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이며, 모습 또한 인자하고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으로 가족의 안녕, 진화, 사업 성장 등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365일 기도,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 관세를

스며 못하시니 어떻게 질문이 모두 다룬데 답변은 한결같이 '옴마니반메홀' 이고 질문자가 스스로 답을 내어 맞다는 마음의 답을 줄 때 참 신기하고 웃음도 납니다.

밝은 모습과 여유로운 마음을 보았고 슬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행동으로는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서원당의 집이나 소모품은 마치 자신의 집 물건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아깝습니다. 기도할 때는 웅얼스럽게 하지만, 놀 때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재미있게 노시고 공양 할 때는 맛있게 드시고 보살님들간에 인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은 흐뭇합니다.

제가 모두 본 받아야 됩니다. 보살님들은 저에게 현장에서 보여주는 참교육의 선배이자 선생님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어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보살님들, 더운 계절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합니다.

옴마니반메홀.

세상사는 이야기

2035년, 난 어느 별에 있을까?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21세기 들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개기일식이 있는 날이다.

그 동안 장마로 잔뜩 찌푸렸던 날씨는 사라지고 오늘따라 화창하게 개이고 태양도 파랗게 내리 쏘고 있다. 일식 관찰 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씨이다. 외출도 자제하고 일식 맛을 준비를 했다. 썬그라스도 준비하고 유리접시를 훑돌에 돌려가며 새까만 그늘음도 만들었다. 오래된 필름도 찾아 놓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개기일식은 볼 수 없고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부분일식이 펼쳐진다고 한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되었다. 먼저 썬그라스로 보다가 실패했다. 다음 그늘린 유리접시도 소용 없었다. 오래된 필름도 눈부셨다. 마지막으로 서둘러라면 봉지를 찾았다. 안쪽은 은박이고 겉은 그림이 그려진 봉지를 꼭 펼쳐서 보았다.

"아! 잘 보인다. 성공이다."

조금씩 태양이 달의 그림자에 가려 거대한 괴물이 한입 베어 먹기라도 한 듯 태양의 한쪽이 사라져 버렸다. 정말 멋진 장면이다. 순간 섬뜩함으로 양쪽 팔에 소름이 돋는다.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 앞에 내

자신 한없이 작아짐을 느낀다.

인간이 100년을 산다 한들 우주의 무한함에는 한순간이다. 지구에 머무르는 짧은 시간,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듯 온갖 욕심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산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멋있게 살고 있다. 나도 남은 내 인생 의미 있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라면 봉지로 태양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열심히 올려다 보았다. 남은 해가 점점 줄어들어 드디어 80% 가까이 없어져 마치 그림달 같은 모습이다. 태양의 따갑던 햇살도 줄어들고 점점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서늘한 느낌이 온 몸을 감싸고 온다. 옛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마음이 내게도 조금은 전해 오고 있다. 이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은 무엇인가? 우리 인체가 우주의 변화를 먼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도 일식을

관찰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의 느낌은 벌써 망각의 저 너머로 사라지고 오늘 첫 느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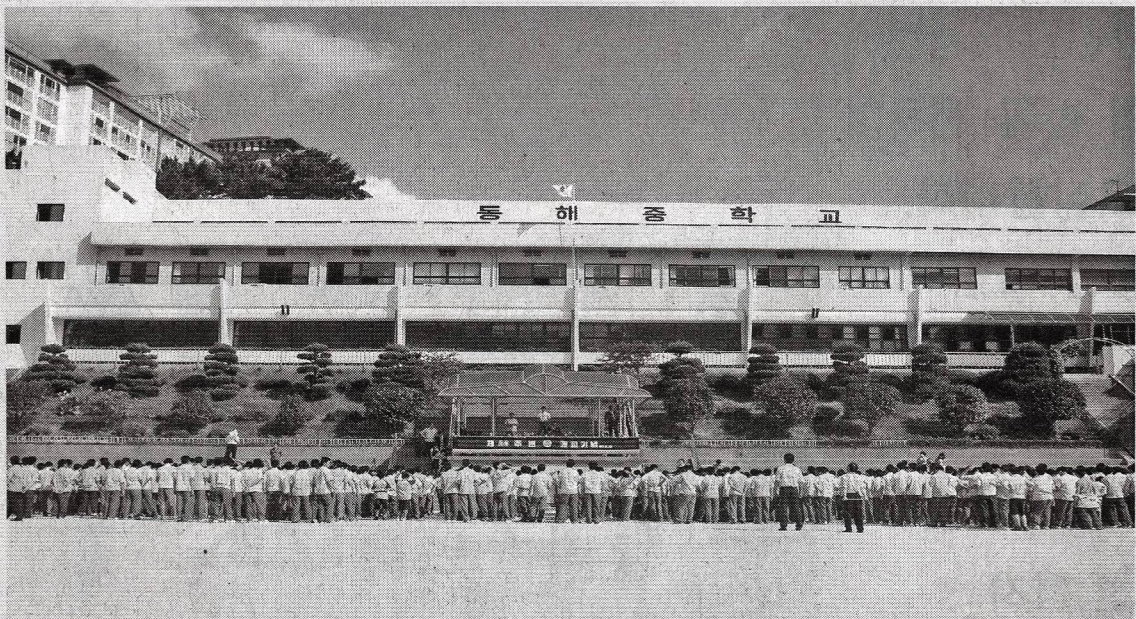
61년 만에 관측된 금세기 최장 일식은 아시아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일식을 볼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표정은 제 각각이었다. 인도의 힌두신화에서는 일식을 악한 신이 태양을 삼켰다가 토해 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때문에 일식 날 태어나는 아기는 불운하다고 믿는 인도의 임신부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짜를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특히 제왕절개 날짜를 연기하느라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고 한다. 일식을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개기 일식을 보기 위해 먼 나라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올려다 보느라 고개와 눈이 많이 아팠지만 금세기 최고의 우주 쇼에 초대받아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은 두고두고 기쁘고 행복이다. 다음 개기 일식은 2035년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 때에는 평양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2035년, 난 어느 우주, 어느 별에 있을까?

〈박묘정〉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창 조
협 동
경 애
교 목 보리수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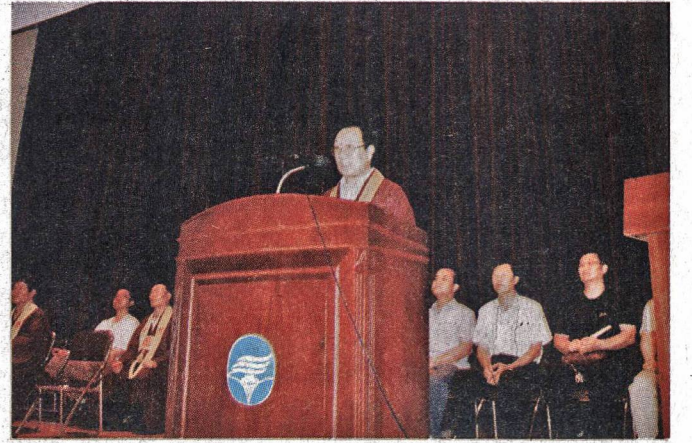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제18회 여름학생 수련회(충남 보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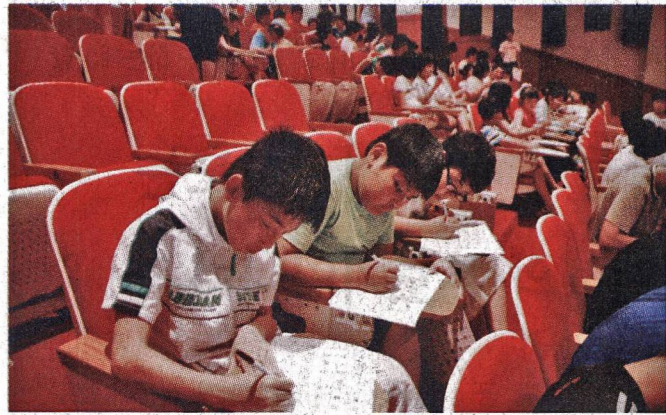
“산과 바다에서 협동심 배웠어요”



새벽 산행



통리원장 개회사



시경공부



“협동심 키워요”



장기자랑



석탄박물관 견학



아트풍선놀이



허브박물관에서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 연습장소 : 총지사
- ◆ 연 락 처 : 이 연 수 단 장
02)552-1080~3(대)

